

## 건초 속에 숨어 있던 폐질환, 농부폐증



농부폐증은 곰팡이가 핀 건초 등 식물성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폐질환으로 1월~3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급성형과 만성형이 있으며, 급성형은 흡입된 지 몇 시간 후 기침, 오한, 발열,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농부폐증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 농부폐증 예방을 위한 분진 방어대책



물 뿌림이나 환기를 자주  
하여 분진 농도를 낮춘다.



분쇄기 기계에는 덮개를  
씌우거나 국소 배기장치를  
한다.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 호흡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

먼지가 많은 노지나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

화학비료나 농약을  
다루는 사람

곰팡이가 핀 밀짚을  
다루는 사람

곡식 저장소에서  
일하는 사람

사료를 먹이거나 사료 관련  
작업을 하는 사람

가금류나 가축의 털에  
노출되는 사람 등

농부폐증은 곰팡이나 세균이 다량으로 포함된 먼지에 반복적으로 노출  
될 때 발생하는 직업성 폐질환의 하나이다. 흔히 유기분진에 의한 과민  
성 폐포염(HP, Hypersensitivity Pneumonitis)으로 분류되며, 주로 농작  
물, 곡물, 건초, 사료 등을 다루는 농업 종사자들에게 나타난다.

1932년, 스위스 의사 버나드 루츠(Bernard Lutz)는 농민들에게서 반복  
적으로 나타나는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을 관찰했다. 흥미로운 점  
은 증상이 특정 계절, 특히 습기 찬 건초를 다룰 때 악화되며, 작업을 멈  
추면 호전된다는 사실이었다. 루츠는 이를 단순한 감기나 기관지염이  
아닌, 농업환경과 밀접히 연결된 새로운 폐질환으로 인식했고 여기서  
“Farmer’s lung(농부폐증)”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이후 영국과 북유럽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원인 규  
명에 속도가 붙었다. 연구자들은 곰팡이와 세균의 일종인 방선균  
(Actinomyces)과 미생물 포자가 주요 항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더 나아가 1960년대에는 농부폐증이 단순한 먼지 흡입이 아니  
라, 면역 반응에 의해 폐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과민성 폐포염’의 한 유  
형임이 정립되었다.

## 환경이 곧 건강

농부폐증의 발견은 직업병 연구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사건  
이다. 이는 노동환경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대표적 사례로 작업환경 관리와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부폐증의 사례를 통해 직업성 호흡기 질환이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작업 환경 개선과 정책적 관리의 대  
상이 분명히 인식되었다. 또한 이 발견은 농업을 넘어 목재 가공, 버섯  
재배, 사료 제조, 금속 가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유기성 분진 또는  
미생물 노출로 인한 유사 질환(예: 사일로충수병, 버섯 재배자폐, 금속가  
공유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확장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농부폐증은 여전히 농업 종사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건초, 곡물, 사료 저장소 등 습기가 많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곰팡이 포자와 미생물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습기  
관리, 충분한 환기, 보호구 착용, 정기 건강검진, 작업 후 세척 및 청결 유  
지 등의 기본적인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부폐증의 역사적 발견은 단순한 의학적 사실을 넘어 “환경이 곧 건강  
이다(Environment is Health)”라는 산업보건의 본질을 일깨워 준다. 이  
는 오늘날 직업환경의학이 추구하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